

# 해수부장관, 호르무즈 내측 선박 선사 대표들과 상황 점검회의 개최

- 선사, 운항을 위한 사전 준비는 마쳐, 해수부, 세밀하게 총력 지원

해양수산부 장관(황종우)은 4월 10일(금) 호르무즈 내에 있는 우리 선박(26척)의 선주사와 선박 관리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8일(수)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1차 회의 이후 선사별로 준비 중인 자체 통항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항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겨 나가자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기기 점검, 보급 등 사전 준비는 마쳤다고 전하며, 우리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인수 (051-773-5850)
		담당자	사무관 김희곤 (051-773-5851)